MONDAY MANNA
November 16, 2026

성공에는 분주함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SUCCESS REQUIRES MORE THAN MOTION

By C.C. Simpson

여러분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이미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연이어 잡힌 회의, 답하지 못한 메시지,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함은 그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Look at your calendar. Odds are it is already full. Back-to-back meetings, unanswered messages, three things you meant to finish last week. From the outside, your life looks productive. Maybe even impressive. But a full calendar can sit on top of an empty man or woman because motion has a way of hiding what is happening underneath it.

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소음에 분명한 선을 그으십니다. 먼저 도둑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In the Bible, we find the antithesis of this: Jesus Christ draws a hard line through all that noise. He warns first about a thief: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Then He plants His flag on the other side: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John 10:10).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도둑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양 떼의 원수이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 위해 언제나 일해 왔습니다. 원수는 리더에게 스캔들을 통해 다가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일정을 통해 다가옵니다. 바쁨은 부지런함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쁨은 우리 안에서 도둑의 일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고, 기쁨을 죽이며,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The thief in John 10 is not a metaphor. He is the enemy of the flock and has always worked to rob God's people of what Jesus, the Shepherd died, to give them. The enemy rarely comes at a leader through scandal. He comes through the schedule. Busyness looks like diligence, so we welcome it in, and it does the thief's work on us: stealing presence, killing joy, wearing down the discernment a leader needs most.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은 한 주의 일정이 얼마나 가득 찬 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풍성한 삶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일과 연결하십니다. 바쁨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루를 온갖 일로 채우고, 끊임없는 움직임이 의미 있는 삶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맡기셨는지를 묻습니다.

That is why an abundant life cannot be measured by how packed your week is. Jesus ties it to Himself, to fellowship with the Father, to work that actually goes somewhere. Busyness is easy to manufacture. I have done that more times than I want to admit, filling a day so the motion could pass for meaning. But meaning takes surrender. It asks who you are serving and why He entrusted you with influence.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움직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함을 피하려고 바쁘게 지냅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활동이 멈추면 흔들리는 자신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강박적으로 변하면 명확함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명확함을 잃은 리더는 잡음을 만들면서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Here is the part we do not like to admit. A lot of our motion is defensive. We stay busy to avoid stillness, to outrun a dissatisfaction we cannot name, to prop up a worth that feels shaky when the activity stops. When the running becomes compulsive, clarity is the first thing to go. And a leader who loses clarity starts making noise and calling it progress.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는 내일의 문제를 향해 달려가면서 눈앞의 사람들을 대충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온전히 함께합니다. 일터에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렇게 다룹니다. 실제로 그 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자체는 여전히 평범합니다. 이메일, 예산, 그리고 미뤄왔던 어려운 대화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런 평범한 일도 한 분기를 넘어 오래 지속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When Christ sits at the center of your life, everything downstream changes. At home, you are present with the people in front of you, not skimming them on your way to tomorrow’s problems. At work, you handle what you have been given as it belongs to Him, because it does. The tasks stay ordinary. Emails, budgets, and a hard conversation you have been avoiding. Aligned with His purposes, that ordinary work carries weight that outlasts the quarter.

일터에서는 그 차이가 금세 드러납니다. 긴급함에 이끌리는 리더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들은 활동을 늘리고 목적은 약화시킵니다. 그런 시간이 충분히 이어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분별력은 무뎌지며, 일은 팀이 그저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공간에서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The marketplace exposes the difference fast. A leader driven by urgency builds a culture of exhaustion without meaning to do so. Decisions made on the run multiply activity and thin out purpose. Give it enough time, and joy erodes, discernment dulls, and work becomes something the team just endures. The life drains out of the room.

풍성한 삶은 그런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변화시키기 전에 리더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더 이상 성과에 달려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주일에 쉴 수 있습니다.

Abundant life interrupts that drift, and it starts with the leader before it ever touches the organization. When your worth stops riding on your output, you can finally move on purpose. You decide from conviction.

You rest on Sunday without guilt gnawing at you, because Someone already determined what you are worth.

그러므로 이번 주를 시작하기 전에 위 말씀의 두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도둑은 실제 존재하며, 리더의 삶에서는 종종 지나치게 꽉 찬 한 주의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고 일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단지 빽빽한 일정 이상의 삶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모든 자리로 조용하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아차릴 때까지 말입니다.

So, before you dive into the week, sit with the two halves of the verse above. The thief is real, and in a leader's life, he often works through the disguise of an overfull week. But Jesus, the Good Shepherd, laid down His life so you could have more than a crowded calendar. Receive that life from Him, and carry it into every room He sends you, quietly and steadily, until the people around you notice the difference.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원수는 바쁨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인가요? 일에서 느끼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잘 이끌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인가요?
   Where is your spiritual enemy currently working through busyness to rob you? Name the specific thing being stolen right now: presence at home, joy in the work, or the discernment you need to lead well?

2.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솔직하게 바라보세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Jesus said He came so you could have life abundantly. Be honest about the gap. What h

ave you been chasing, striving to gain through activity, that only Jesus Christ can actuall y give you?

3. 이번 묵상글에서는 풍성한 삶이 조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리더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긴급함에 이끌려 결정하려 했던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속도를 늦추고 긴급함이 아니라 확신에 따라 결정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The devotional says abundant life reorders the leader before it reshapes the organizatio n. Name one decision this week you have been driving with urgency. What would chang e if you slowed down and decided from conviction rather than a sense of urgency?

4. 묵상 작가 Oswald Chambers는 "좋은 것은 최선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바쁨이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선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Devotional writer Oswald Chambers said,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Does our motion – our busyness – seem good even though it is keepi ng us from the best?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시편 46:10, 마태복음 11:28-30, 누가복음 10:41-42, 요한복음 10:1-11, 골로새서 3:23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Psalm 46:10; Matthew 11:28-30; Luke 10:41-42; John 10:1–11; Colossians 3:23

- **(시편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
- **(마태복음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41-42)**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요한복음 10:1-11)**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e Week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일정을 확인하기 전에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요한복음 10:10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두 부분을 모두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빼앗으러 오는 도둑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활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안의 불안함에서 달아나기 위한 것인가?"

Before you touch your calendar each morning this week, sit still for five minutes with John 10:10 and meditate on what Jesus was teaching. Read both halves out loud: the thief who comes to s teal, and the Christ Who came to give abundant life. Then ask one question before you plan the day: Is this activity serving God's purpose, or only outrunning my own restlessness?

이번 주 일정 가운데 단지 바쁘게 움직이기 위한 일 한 가지를 없애고, 그렇게 되찾은 시간을 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위해, 또는 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지 지켜보십시오.

Eliminate one thing from your week that is pure motion, and give that reclaimed time to a person, to prayer, or to rest. Watch what fills the space.